

고산 윤선도 漢詩의 자료학적 고찰*

김대현**

<차 례>

1. 머리말
2. 『私稿詩』에 실린 한시의 내용과 의미
 - 2.1. 필사본 한시집 『私稿詩』
 - 2.2. 『私稿詩』의 내용 고찰
3. 東詩 작가로서의 孤山
 - 3.1. 『孤山遺稿』 所載 東詩 작품
 - 3.2. 필사 시집 所載 東詩 작품
4. 맺음말

<국문초록>

고산 윤선도(尹善道, 1587~1671)는 17세기의 대표적인 작가이다. 일찍부터 시조문학에서 큰 주목을 받아, 그에 대한 연구는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그 연구는 그의 문집 『孤山遺稿』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실은 고산 윤선도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고산 한시의 資料學的인 면에 대한 검토를 간단하게 하였다.

현재 『孤山遺稿』에 실려 있는 한시는 260여 편 360여 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의 작품은 문집 『孤山遺稿』에만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私稿詩』라고 표제가 붙어있는 필사 시집을 비롯하여 몇 권의 東詩集들에 더 남아있다. 이런 자료들은 몇 년 전에 필자가 해남 綠雨堂 宗家の

* 이 논문은 2009년도 전남대학교 연구년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전적 조사과정에서 발견하였다.

따라서 고산 한시를 자료학적인 면에서 살펴볼 때, 새롭게 발견된 일반 한시와 함께 특별히 東詩 작품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산이 남긴 東詩(기존의 科體詩) 작품 중 8수나 그의 문집에 실려 있다. 그러나 고산은 문집에 실린 동시 작품 외에도, 많은 동시 작품을 필사본으로 남기고 있다. 이들 동시 작품은 17세기 東詩 발전사의 중요한 작품군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자료적 측면에서, 필사본 『私稿詩』와 필사본 東詩集 소재 한시 등이 고산 한시의 새로운 작품으로 추가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고산 작품의 새로운 추가는 고산 문학 연구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제시되는 내용이다.

『私稿詩』에는 약 50여 수의 새로운 한시가, 필사본 동시자료집에도 약 200여 수 가까운 동시 작품들이 남아있다. 따라서 기존에 고산 한시 약 360여 수 가량에서 더하여, 전체적으로 600여 수 내외의 한시 작품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새로 발견된 한시 자료의 내용은 논문에서 간단하게 언급하였는데, 향후 이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번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어 : 윤선도(尹善道), 『고산유고(孤山遺稿)』, 『사고시(私稿詩)』, 동시(東詩),
과체시(科體詩)

1. 머리말

고산 윤선도(尹善道, 1587~1671)는 17세기의 대표적인 작가이다. 일찍부터 시조문학의 면에서 큰 주목을 받았기에, 지금까지 그에 대한 연구는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 연구는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니, 이미 80년이 넘게 흘렀다. 현재까지 약 200여 편이 넘

는 수많은 연구 논문과 십 수권에 달하는 단독의 저서가 나와 있어서, 그 연구 성과를 종합하는 것도 매우 지난한 일이 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연구는 그의 문집 『孤山遺稿』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연구 가운데 지금까지, 간행된 문집 『孤山遺稿』 외에 단 한 편도 고산의 작품에 대하여 알린 바가 없었다. 그런데 실은 고산 윤선도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다. 그리고 새롭게 주목하여야 할 분야를 가지고 있는 뛰어난 작가이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자료학적인 부분을 두 가지 면에서 우선 간단하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¹⁾

논의에 앞서 연구의 기초가 되고 있는 문집 『孤山遺稿』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사실 문집 『孤山遺稿』는 『孤山集』이라는 이름으로 1678년에 목판으로 초간이 되었다. 그러다가 1796년에 이 『孤山集』을 수정 보완하여, 『孤山遺稿』라고 이름을 바꾸어, 다시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이 목판본 『孤山遺稿』가 그의 문학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적인 문헌이 되었다. 여기에도 사실 앞으로 더 연구가 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처음 간행된 『孤山集』에 대하여, 현재 남아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 모습을 잘 알 수가 없다. 다만 정황상 현재의 『孤山遺稿』는 이 『孤山集』을 증보한 문집이라고 여겨진다.²⁾

자료 정리로 말하자면, 문집인 『孤山遺稿』가 먼저 번역이 되어야만 하였는데, 아직까지 완전한 번역본이 출판되지 못하였다. 다만 『孤山遺稿』에 실린 한시 부분은 지금까지 모두 3차에 걸쳐서 번역본이 나와 있다.³⁾ 『孤山遺稿』의 번역에 대하여 더 말하자면, 필자를 비롯한 몇 사람이 수

1) 이 논문은 2011년 10월 19일, 완도 고산학술제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하여 보완한 것이다.

2) 1796년 정조 20년 3월, 전라감사 徐鼎修에게 명하여 『고산집』 목판본을 수정 보완하여 다시 6책을 15부 인행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조선왕조실록』 기사

3) 윤주현, 박호배 역, 『고산윤선도 문학선집』, 정미문화, 2003. 이형대, 이상원, 이성호, 박종우 역, 『고산유고』, 소명출판사, 2004. 이상현 역, 『고산유고 1』, 한국고전번역원, 2011년 등 모두 3차에 걸쳐 고산 한시의 번역이 이루어져 있다.

년간에 걸쳐서 번역 작업을 마무리하여, 곧 완역본이 출간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이상현 선생의 『고산유고』 제1권, 제2권을 비롯한 번역본이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출간되고 있고, 앞으로도 간행될 예정이다. 최근에는 고산 윤선도 평전이 간행되어 그의 문학적 전기를 내밀하게 살펴보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⁴⁾

이처럼 근래에는 고산의 문학에 대하여 자료학적으로 기초적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고산 한시의 資料學的인 면에 대한 검토를 간단하게 하고자 한다. 고산 윤선도의 한시 문학 작품은 흔히 시조 작품 75수에 비하여 약 5배 정도 된다는 말을 한다. 현재 『孤山遺稿』에 실려 있는 한시는 260여 편 360여 수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의 작품은 앞서 말하였듯이 문집 『孤山遺稿』에만 실려 있는 것으로 알았으나, 그의 필사본 한시집이 발견되어 새로운 한시들이 나타났다. 그러한 책은 『私稿詩』라고 표제가 붙어있는 필사 시집을 비롯한 몇 권의 책들이다.⁵⁾ 이는 몇 년 전에 필자가 해남 綠雨堂 宗家の 전적 조사과정에서 발견하였다. 이러한 필사 시집들에는 새로운 시가 실려 있는데, 일반적인 한시를 적은 한 책과, 이른바 東詩를 적은 몇 권의 책들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새롭게 찾을 수 있는 고산의 한시는 이러한 필사본 시집들에 실려 있는 것들이다. 문집과 별도로 후대에 간행된 『孤山先生年譜』에는 22首에 가까운 고산 한시의 일부가 실려 있는데, 이는 모두 다 『孤山遺稿』에 실린 작품들이다.⁶⁾

말하자면, 고산의 한시 가운데 자료학적인 면에서 살펴볼 때, 새롭게

4) 평전은 일찍이 박준규 교수에 의하여 저술되었다. 박준규 지음, 『유배지에서 부르는 노래』, 중앙 M&B, 1997년. 최근에는 고미숙 지음, 『윤선도 평전』, 한겨레 출판사, 2013년이 출간되기도 하였다.

5) 이에 대한 내용은 한 차례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다. 송일기, 노기춘 편, 『해남 녹우당의 고문헌』, 태학사, 2003. 이 가운데 김대현, 「녹우당 소장 한문학 자료의 검토」에서 간단하게 보고되었다. 이 논문은 이를 좀 더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6) 『孤山先生年譜』는 1898년 간행된 3권 1책의 목활자본과 1933년에 간행된 3권 1책의 목판본이 있다.

발견된 일반 한시와 함께 특별히 東詩 작품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산은 현재 東詩 작품이 8수 그의 문집에 실려 있다. 이는 매우 특별한 사실이다. 보통 문집에 東詩가 실려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현재까지 필자가 파악하기로는 우리나라 문집 가운데 약 30여 종 정도의 문집에 그러한 종류의 시가 실려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앞으로 더 많은 작품들이 문집에서 발견될 것이다. 필자는 東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동시는 남아있는 분량이 매우 방대하고, 그 한시의 형식이 중국과 다른 우리만의 고유한 형식이기 때문에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이 고산 한시 연구와 관련된 자료학적인 면에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가운데 새로운 한시집 『私稿詩』의 발견에 대한 의미와 고산 윤선도 한시에서 기왕에 주목하지 않았던 東詩 작품들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2. 『私稿詩』에 실린 한시의 내용과 의미

2.1. 필사본 한시집 『私稿詩』

해남윤씨 종가인 海南 蓮洞의 綠雨堂에는 많은 고문헌이 소장되어 있다. 약 1,425책의 고문헌이 남아 있는데, 그 양으로나 질로 보아서 가히 우리나라 최고 수준급의 소장문헌이라고 할 만하다.⁷⁾ 필자는 일찍이 그곳의 문헌을 서지학자들과 조사한 적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필사본들을 열람하다가, 몇 종의 의미 있는 책들을 발견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私稿』 혹은 『私稿詩』라는 필사본 시집 몇 책이었다. 이 가운데 『私稿詩』 시집은 그 내용과 편차에 있어서 거의 『孤山遺稿』 권1에 실린 내용과 유사하였지만, 『孤山遺稿』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들이 상당 수 실려 있었

7) 송일기, 노기춘 편, 앞의 책. 간행사 부분.

다. 이 시집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私稿’라는 이름으로 인하여, 고산이 친필로 편차하여 놓은 시집이라고 여겨진다.

『私稿詩』는 모두 84張으로 되어 있고, 시는 285편 393수가 실려 있다. 여기에는 『孤山遺稿』에 실리지 않거나, 제목이 다른 한시가 약 50여수가량 더 실려 있다. 그런데 그 편차를 보면 14세의 작품부터 시작하여 63세까지 작품으로 순서대로 실려 있다. 이후에는 다시 연대가 일부 섞여 실려 있다가, 다시 연대순으로 고산의 나이 83세 때인 1669년 작인 「同何閣」 시까지 실려 있다. 그리고 연대미상의 시 두 편이 가장 뒤에 실려 있는데, 이로 미루어 창작 연대가 불분명한 작품들도 상당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私稿詩』에 실려 있지만 『孤山遺稿』에 빠져있는 한시는 모두 50여수가량 되지만, 거꾸로 『孤山遺稿』에는 있는데 『私稿詩』에는 없는 시들도 상당수 있다. 말하자면 이 『私稿詩』는 고산 작품의 여러 필사 원본 가운데 한가지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孤山遺稿』와 가장 유사한 필사 시집은 이 책 『私稿詩』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그의 『私稿詩』 소재 시를 통하여 새롭게 알 수 있는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私稿詩』에 새롭게 실려 있는 한시를 들어본다.

1600년, 선조33, 庚子, 14세. 8)

「遊國島」

1605년, 선조38, 乙巳, 19세.

「古意」 2수

1611년, 광해3, 辛亥, 25세. (해남으로 내려가다)⁹⁾

「辛亥元日記懷」

8) 『孤山先生年譜』에는 신축년(1601)년으로 되어 있는데, 『私稿詩』에는 경자년(1600)으로 되어 있다.

9) 이하 괄호 안의 거주지는 年譜에 실린 내용이다.

1612년, 광해4, 壬子, 26세. 10)

「代人呈兵相, 2수」 「代人贈兵相子」 「代人留別兵相」 「代人作, 2수」 「代人寄友」 「詠硯滴呼韻」

1616년, 광해8, 丙辰, 30세. (12월에 병진소를 올리다)

「往南陽伯父舊宅有感, 2수」 「得昔年日, 삼장」 「代人作挽, 2수」

1617년, 광해9, 丁巳, 31세. (당시 경원에 유배시절)

「路中偶吟」 「次會山丈人韻, 3수」 「又次來韻」, 낙망시 원운, 「簡鰲山丈人, 3수.- 2수 추가됨」

1618년, 광해10, 戊午, 32세. (겨울에 기장으로 이배되다)

「次韻酬沈聞慶宗直」 「到車城後沈又寄五絕 次韻謝之」

1629년, 인조7, 己巳, 43세. (한양에서 관직에 있었다)

「挽詩」 松峴時

1631년, 인조9년, 辛未, 45세.(한양에 있었다)

「答人」 元韻 실림.

1633년, 인조11, 癸酉, 47세. (한양에 있었다)

「挽宋平康」 (차운답인 원운 실림), 조부 이견당 원운, 「戲贈成都主人」

1638년, 인조16, 戊寅, 52세. (영덕으로 유배되다)

「竹嶺嶺上」 「挽張友淵祖母」 「李季夏與主手 趙君獻來訪 次季夏韻」 「訪李季夏亦來 次季夏韻」

1644년, 인조22, 甲申, 58세. (금채동에 있었다)

「挽坡村尹兄遠」

1645년, 인조23, 乙酉, 59세. (금채동에 있었다)

「挽尹先達綏昌」

10) 임자년(1612년) 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1646년, 인조24, 丙戌, 60세. (부용동에 있었다)
「挽白上舍景觀」

1650년, 효종1, 庚寅, 64세. (부용동에 있었다)
「次懷鄭泊韻」 「次宮槐陌韻, 2수」

1651년, 효종2, 辛卯, 65세. (부용동에 있었다)
「和書齋諸作」

1652년, 효종3, 壬辰, 66세. (한양으로 올라갔다)
「謹次瓊韻, 2수」 「送麟坪閣下遊楓岳」, 「次寄歙谷大夫李而聖, 2수」

1653년, 효종4, 癸巳, 67세 (부용동으로 들어가다)
「效李開寧翼老詩」 「寒盡不知年」

1654년, 효종5, 甲午, 68세. (부용동에 있었다)
「挽尹僉知宏中」

1655년, 효종6, 乙未, 69세. (금채동에 있었다)
「次韻 贈虛白老師」 「次虛白老師韻 贈淳長老」

1659년, 효종10, 己亥, 73세. (고산에 있었다)
「挽盧參奉尙煥」

年紀 不明 詩

「挽尹孝伯 善繼」 - 1655년 무렵

「題伽倻古琴」 - 1655년 무렵

2.2. 『私稿詩』의 내용 고찰

『私稿詩』에는 이상과 같은 50여 수 가량의 시들이 새롭게 실려 있는데, 이런 시들은 무엇보다 처음 발견된 고산의 작품이라고 하는데서 큰

가치가 있다.¹¹⁾ 고산의 삶과 문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이들 한시 가운데 비교적 중요한 작품들을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다.

『孤山先生年譜』에는 辛丑년 고산의 나이 15세에 부친을 따라 안변도호부에 갔으며, 그 小註에 「道中作」, 「遊國島」 등의 시가 있다고 되어 있다. 「道中作」은 『孤山遺稿』에 실려 있는 「臨湍道中」으로 생각되는데, 「遊國島」시는 그 동안 어떠한 시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私稿詩』에 이 시가 실려서 이 시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연보와는 다르게 이 작품을 경자년에 지은 것으로 적어 놓았기에, 현재 14세 작인지, 15세 작인지 분명하지 않다.¹²⁾ 연보에 따르면 15세 고산은 부친 滄洲公의 임소인 安邊에 가 있으면서, 어느 날 國島를 유람하면서 지은 시이다.

款乃聲中塵世隔 뱃노래 가운데 속세와 멀어지니
孤帆影裡乾坤別 외론 배 그림자 너머 하늘과 땅이 나뉘었네.
不知眞是神仙居 모르겠네, 실로 신선의 거처인지
但覺令人爽精魄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그의 새로운 모습을 알려주는 작품들은 그의 문학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 시는 『私稿詩』에 의하면 고산의 첫 번째 시로 자리매김할 작품이기에, 그 자료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알려지다시피 고산 윤선도는 세 번씩이나 유배를 간다. 첫 번째는 30세 때 유명한 「丙辰疏」를 올리고 나서, 두 번째는 52세 때 병자호란이 끝

11) 이들 시의 전체적인 작품과 구체적 번역은 다른 기회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작품의 정리에 따른 간행을 준비하고 있다.

12) 사고시에는 가장 이른 4편의 작품이 모두 경자년(14세) 작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 순서는 「遊國島」 - 「自國島回舟」 - 「臨湍道中」 - 「往安邊途中偶吟」의 순서로 실려 있다.

나고 나서, 세 번째는 74세 때 이른 바 ‘禮訟’에서 <3년설>을 주장하는 「論禮疏」를 올리고 나서 삼수에 안치되었던 일이다. 귀양길에 오른다는 것은 참으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한 내용이 문학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을 리가 없다.

30세 때 병진소를 올리고 나서 첫 번째 귀양길에 오르면서 남긴 시로 『孤山遺稿』에는 「戲贈路傍人」이라 하여 함남 홍원의 기생 趙生에게 준 시가 있다.¹³⁾ 또 「吉州途中」이라는 시가 남아 있는데, 연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공이 洪原에 도착하자, 기생 趙生이 자신이 빚은 술과 자리[班荊]를 가지고 와서 위로하기를 “이는 말할 만한 때가 아닌데, 이런 행차가 있게 되었습니까?”라고 했다. 공이 시를 기증하기를 “내 일이 참으로 제때가 아님을, 너는 알고 나는 모르는구나. 독서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니, 하늘이 어리석은 자를 낳았다고 하겠다(吾事固非時, 汝知吾不知. 讀書不及汝, 可謂天生癡)”라고 했다. 이로부터 사대부들이 공적이나 사적으로 가는 사람은 다투어 화답하여 조생에게 기증했다. 마침내 北關의 名妓가 되었다.¹⁴⁾

31세 때 젊은 나이 혈기 방장한 고산이 남긴 한 수의 시는 기생 조생을 이처럼 북관의 명기로 만들기도 하였다. 원운은 그의 심사가 울울하였음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런데 『私稿詩』에는 이 밖에 다음과 같은 「路中偶吟」이라는 시가 더 실려 있다. 이 작품에서 고산은 사람들이 자신을 미치광이 취급할 거라는 등의 표현을 하고 있어서, 그의 마음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3) 이에 대한 수많은 작가들의 차운시가 있다. 40여 명의 80여 수에 달하는 시가 <趙生帖>으로 묶여져 있다. 이 연구는 몇해 전 전남대 호남한문고전연구실의 작업으로 수행된 바 있다. 『棠岳文獻』 권 14에 실려 있다.

14) 公, 行到洪原, 有妓趙生, 持私釀班荊, 以慰曰: “此, 非可言之時. 而有此行耶?” 公贈詩曰: “吾事固非時, 汝知吾不知. 讀書不及汝, 可謂天生癡.” 自此, 士大夫之公私經行者, 爭相和贈生, 遂爲北關名妓. 『孤山先生年譜』 권1 所載.

古今風漢出康莊 예로부터 미친 사람 거리에 나오면
 老弱相登若堵牆 노약자들 구경하느라 담처럼 모인다지.
 此去且多來見者 내가 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는데
 遠人應亦識吾狂 먼데사람들 아마도 내가 미치광인 줄 알겠지.

다음으로 52세 때 6월에 영덕으로 2차 유배를 가면서 도중에 남긴 시로 「歇馬孔岩」, 「竹嶺道中」 두 편이 있었는데, 『私稿詩』에는 「竹嶺嶺上」이라는 시가 한편 더 실려 있다. 고산은 병자호란이 끝난 이듬 해, 달려가서 안부를 묻지 않고, 처자를 약취하였고, 海島에 거주하면서 벼슬에 나오지 않았다는 등의 죄목으로 체포되어 옥에 갇혔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다만 奔問하지 않은 것으로 徒配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첫 번째 귀양 갈 때보다, 심신의 안정이 무척 여유로워 보인다. 이 시에서도 그러한 점을 알 수 있다. 유배객이 아니라 마치 유람객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奇岩古木小溪涯 기암과 고목이 늘어선 작은 시냇가는
 洞壑陰陰爽氣多 골짜기 우거져서 시원한 기운도 많아
 赤足當流清興發 맨 발을 물에 담그니 맑은 흥 일어나
 却忘前路夕陽斜 갈 길을 잊었더니 석양이 기울었네

한편 『私稿詩』에는 20여 수 가까운 元韻이 실려 있다. 물론 『孤山遺稿』에도 원운들이 제법 실려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孤山遺稿』에 빠진 원운들이 여러 편 실려 있다. 예를 들면 「戲次方丈山人芙蓉釣叟歌」라는 시가 있다. 임진년인 66세 때 孤山에 머물면서 지은 시인데, 『私稿詩』에는 모르고 있었던 방장산인의 「芙蓉釣叟歌」가 실려 있어서, 이 시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무렵에는 고산이 정월에 성균관 사예, 승정원 동부승지, 예조참의 등에 임명되는 등 계속하여 관직을 제수 받았다. 그러다 11월에 원두표를 논죄하는 상소를 올리고, 삭출되어 해남으로 돌아온 해였다.

또 이 시집에는 自註가 더 자세하게 붙어있는 詩들이 여러 수가 있다. 『孤山遺稿』에도 많은 自註가 있어서 그의 시를 잘 이해하도록 하여주는 데, 여기서도 그런 점이 보인다. 17세작인 「詠硯滴呼韻」에서는 연적이 북송아 모양이어서 이 시를 짓는다고 되어 있으며, 26세작인 「答張秀才書」라는 시에는 장수재의 시로 된 편지를 2일 날 받았다고 되어 있어서, 열 하루만에 13句의 시를 지어서 보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처럼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自註가 붙어서 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自註는 시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의 한 가지이다.

아울러 이 시집에는 창작일자를 분명하게 밝힌 작품들이 많다. 알다시피 『孤山遺稿』는 詩가 창작연대순으로 배열된 매우 특징적인 문집이다. 그런데 『孤山遺稿』에서는 창작연대만 밝혀져 있는 것들이 『私稿詩』에는 몇월 몇일에 지었다는 作詩일자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그의 마지막 시로 되어있는 「同何閣」시는 83세작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私稿詩』에는 ‘9월 18일’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작품은 셋째 아들 禮美가 죽은 지 한 달 후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창작 일자가 밝혀지면, 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좀 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시들에서 계절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거나, 날짜까지 밝혀져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고산의 전기를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 밖에 의미 있는 점은 다른 사람들의 시들이 실려 있어 자료 가치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조부인 理遣堂의 詩 네 수가 실려 있는 것이나, 부친인 滄州의 시가 두 수 실려 있는 것 등은 해남 윤씨 가문의 문학을 이해하는 좋은 자료가 된다.

이처럼 이 『私稿詩』에는 기왕에 알려지지 않았던 시나 시에 대한 내용들이 실려 있다. 물론 여기에는 代人詩들도 있고, 또 상당수의 挽詩가 실려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위에서 든 여러 사실들은 고산의 한시를 이해하고, 그의 문학적 연보를 작성하는데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3. ‘東詩 작가’로서의 孤山

3.1. 『孤山遺稿』 所載 東詩 작품

이른바 ‘科體詩’는 ‘行詩’, ‘程詩’ 혹은 ‘東詩’라는 이름으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기존의 간행된 문집에 ‘科體詩’, ‘科詩’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표기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데 필자는 이러한 종류의 시는 ‘東詩’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긴다. 그러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 이 같은 시가 필사된 시집들의 제목에 ‘東詩’ ‘東人’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이는 ‘東人之詩’라는 의미로 ‘東詩’라고 하거나 ‘東人’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이다. 말하자면 현재 상당수 남아 있는 필사본 시집에는 표지에 ‘科體詩’, ‘科詩’라고 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과거를 위한 한시 형식’이라는 소극적인 의미로 사용하여 ‘科體詩’라고 부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시 혹은 한시 형식’이라는 의미의 ‘東詩’라고 바꾸어 불러서 적극적으로 문학사의 한 축으로 기술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東詩는 그 형식으로 보자면 처음에 科試를 위한 형식에서 발전되었지만, 조선 중기를 지나면서 7言 長篇으로 형식이 정형화되었다. 우리나라 동시의 역사는 그 연원이 오래되었는데, 고려시대 과거제가 시작되면서 이루어진 五言의 6韻詩, 10韻詩 등 과시 형태의 시는 그 전단계라고 할 만하다. 다음 조선시대부터는 15세기 춘정 변계량(卞季良, 1369-1430)에 의하여 7언 장편의 과시 형식이 창안되었다는 여러 기록들이 남아 있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조선 초기에 이런 30句 이상에 달하기도 하는 장편 형식의 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東詩 가운데는 다시 長短句 등을 사용하거나, 押韻을 바꿀 수 있고, 聯數가 일정하지 않은 ‘古詩’가 있고, 18세기 이후에 정형화된 동시인 이른바 ‘行詩’들이 있다. 필사시집에 古詩나 行詩로 표기 되어 있는 경우가 자주 보인다.

지금까지 동시에 대한 연구는 기초적인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연구가 아직은 대개 일반적이고 개론적인 연구에서 동시에 대한 형식이나 개념을 정립하는데 치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고산 윤선도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바로 이러한 東詩 작품은 고산의 창작이 아주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문집 소재뿐만이 아니라, 여러 필사 시집들에 고산의 東詩 작품이 두루 남아 있어서, 그가 많은 東詩를 창작하였음을 알려 주고 있다. 말하자면, 19세기의 대표적인 東詩 작가가 김삿갓으로 널리 알려진 김병연(金炳淵, 1807-1863)이라면, 17세기의 동시 작가로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는 사람은 孤山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고산의 동시 작품은 일부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까지 『孤山遺稿』 권 6 상 별집에 실린 8수를 통해서다.¹⁵⁾ 임진왜란이 끝난 17세기는 동시 문학이 발달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오늘날 그 남은 작품의 숫자가 전세기의 작품에 비하여 많은 증가를 이루고 있다. 과거에서 한시 과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음은 물론이었고, 여러 문인들이 나타나 이러한 종류의 시를 창작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17세기 대표적인 동시 작가는 17세기 초에 활동하였던 허균(許筠, 1569-1618)이었다는 연구가 있다. 『東詩品彙』는 현재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東詩品彙補』에 허균의 시가 5수 실려 있었음은 그가 당시 이름난 동시 작가였음을 알려주는 사실이다.¹⁶⁾

17세기 동시문학은 허균을 이어, 고산 윤선도를 들 수 있다. 아마도 17

15) 오늘날 문집 소재 東詩 자료는 대개 16세기 문인들부터 문집에 동시 작품이 실리기 시작한다. 임식(1539-1589)의 『松坡遺稿』에는 동시가 28수나 실려 있고, 남이웅(1575-1648)의 『市北遺稿』에도 7수가 실려 있다. 이 밖에도 율곡 이이의 「送項梁渡江」(38구), 「捉月圖」(40구), 송강 정철의 「老病有孤舟」(23구), 충장공 김덕령의 「子胥遺怨浙江湖」(32구)를 비롯하여 많은 동시들이 문집에 실려 있다. 한편 개인 문집에 실리지 않은 백호 임제의 「影」(24句) 등 東詩 選集에 실린 많은 작품도 남아있다.

16) 허경진, 「동시품회보와 허균의 과체시」, 『洙上古典研究』 제 14집, 열상고전연구회, 2001.

세기의 대표적인 동시 작가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자료로 미루어볼 때 고산 윤선도가 대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7세기 동시 문학은 다시 고산 윤선도와 비슷한 시기 인물인 李植(1584-1647)이 있으며, 또 17세기에는 金壽恒(1629-1689)이나 金昌協(1651-1708), 金昌翁(1653-1722) 등으로 이어지는 서인 문벌 가문의 작가들도 동시에 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李師命(1647-1689) 또한 동시로 이름을 날렸던 작가였는데, 그는 『東詩品彙補』에서도 가장 많은 작품 6수를 실어서, 그가 동시 문학의 뛰어난 작가임을 알 수 있다.

고산은 주로 17세기에 활동한 작가이지만, 이러한 동시 문학의 전통을 발전시켜 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의 문집에 東詩 작품이 8수나 실리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현재 필사 시집에 남아있는 자료로 볼 때, 17세기의 대표적인 동시 작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東詩 작가 중 한사람이 고산 윤선도였다고 보인다.

고산의 동시는 長短句의 사용이 자주 나타나고, 聯數도 일정하지 않아서, 이른바 古詩 형태의 東詩를 보이고 있다. 이제 문집에 실린 그 작품들을 순서대로 들면 다음과 같다.¹⁷⁾

- 1) 「人間讀史各君臣」 辛亥
- 2) 「門人廢蓼莪」 辛亥
- 3) 「愁」 壬子
- 4) 「錢塘春望」 陞補二中居魁
- 5) 「淸風明月不用一錢買」 辛亥
- 6) 「冒雪訪孤山」 壬子監會二上第二
- 7) 「家具小於車」¹⁸⁾
- 8) 「客心洗流水」 戊子

17) 고산의 구체적 동시 작품과 관련된 논문이 쓰여 졌다. 김대현, 「孤山遺稿 권6 所載 東詩 冒雪訪孤山 考察」, 『한문학보』 18집, 우리한문학회, 2008. 김대현, 「17세기 東詩 文學과 孤山 尹善道の 錢塘春望」, 『한문학보』 19집, 우리한문학회, 2008. 여기서는 이 논문을 바탕으로 하여 문집 소재 東詩의 내용을 언급하도록 한다.

18) 이본 필사 시집에는 小가 少로 되어 있다.

원래 『孤山遺稿』에 실린 한시는 창작 시기별로 편찬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동시 작품은 그 순서가 창작시기별로 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데, 아마도 창작 시기가 불분명한 작품들이 있어서 일지도 모르겠다. 먼저 이 시들을 창작된 시기별로 살펴보기로 하자.

문집 『孤山遺稿』에 실린 동시 작품 가운데, 시기적으로 고산의 첫 번째 동시 작품은 바로 丙午년 1606년, 고산이 20세에 지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바로 「錢塘春望」은 陞補二中居魁라고 되어 있어서 과거시험에 응시하고 지은 시였음을 알려준다. 고산은 20세에 승보시에 연달아 장원으로 급제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고산은 한양에 있으면서, 四學의 유생이었는데, 승보시는 사학의 유생 가운데 성균관에 들어갈 사람들을 뽑는 시험이었다.

다음은 25세 때인 1611년 辛亥년의 동시 작품이다. 첫 번째 시 「人間讀史各君臣」인데 辛亥년 작으로 되어 있다. 그는 그해 10월에 상복을 벗고, 11월에는 서울에서 해남으로 돌아갔다. 연보의 기록만으로 의거하면, 이 해는 과거를 보지 않은 해였다. 이 해에 함께 지은 시가 「門人廢蓼莪」이다. 신해년 10월에 생모의 상복을 벗었다. 연보에 의하면 그 앞선 해 22세 때에는 모부인 구씨의 상을 당하였는데, 고산이 지극하게 예를 행하여, ‘효자를 얻었으니 恨이 없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양모와 생모가 계속하여 운명하여, 고산은 효에 대한 인식이 새로웠던 것 같다. 그 결과 이러한 효행을 나타낸 「門人廢蓼莪」라는 동시를 창작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 작품 가운데 「淸風明月不用一錢買」는 辛亥년 작으로 되어 있는데, 25세, 혹은 85세 때 지은 한시일 것이다. 그런데 작품의 내용으로만 미루어 보면, 고산이 85세 때 보길도에서 지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필사 시집에는 25세 때 신해년 작과 이어져 필사되어 있어서, 25세 때의 신해년 작으로 여겨졌던 것 같다.

임자년 1612년 26세 되던 해에는, 「愁」, 「冒雪訪孤山」을 짓게 된다. 당

19) 현재 고산의 동시는 필사 동시집에 의하면 을사년(1605년) 고산의 19세 작품도 일부 남아있다.

시 고산은 해남에 성묘를 다녀와서, 본격적으로 과거시험을 준비하였을 것이다. 이해 봄에 진사사에서 「冒雪訪孤山」을 지었는데, 임숙영이 이 작품을 보고 당세 제일로 칭찬하여, 이 작품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고산이 62세 때인 戊子년 1648년 작으로 동시 「客心洗流水」가 있다. 20) 당시에는 부용동에 있을 때이니, 나그네 마음을 흐르는 물에 씻는다는 내용으로 자연 속에서 지은 작품이다.

현재 「家具小於車」는 창작연대가 미상이다. 따라서 문집 『孤山遺稿』에 실린 8편의 동시 가운데, 한 편은 창작 연대가 불분명하고, 다른 한 편은 미상이다. 향후 두 작품의 창작 시기를 고찰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고산의 동시 창작 시기를 살펴보면, 여기에 실린 위의 몇 수를 보아서도 20세부터 62세까지 계속하여 東詩를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산은 이러한 유형의 동시를 평생 동안 창작하고 있었는데, 이는 東詩가 科擧 시험과는 무관하게 하나의 고유한 한시 유형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위의 『孤山遺稿』에 실린 8수의 동시 작품의 내용은 모두 네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¹⁾ 첫째, 역사 고사를 통한 忠孝 인물을 다룬 작품이다. 고산의 나이 25세인 1611년 작인 「人間讀史各君臣」과 「門人廢蓼莪」는 忠과 孝에 대한 고산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人間讀史各君臣」은 南宋의 충신 文天祥의 아들 文陞의 불효를 20연 40구로 지은 작품이다. 여기서 충신 豫讓, 王偉元 등의 고사를 두루 인용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고산은 문천상의 아들이 元을 섬긴 것에 대한 분노와 비난을 드러내고 있다. 문천상은 남송 말기의 대표적인 충신으로 원나라

20) 필사시집에 의하면 이 작품은 戊子年 여름에 지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세 수가 연작으로 실려 있다. 『고산유고』에는 그 중 첫 번째 시만 실려 있다.

21) 이러한 네 가지 유형론은 일찍이 다른 논문에서 검토를 한 바가 있다. 여기서는 그 내용을 수정하고 보충한 것이다. 김대현, 「孤山遺稿 권6 所載 東詩 冒雪訪孤山 考察」, 『한문학보』 18집, 우리한문학회, 2008, 372면에 다루어져 있다.

에 맞서 싸우다가 사로잡혀 처형당하였다.²²⁾

「門人廢蓼莪」는 魏나라 王偉元의 孝心을 다룬 내용이다. 왕위원은 삼국 시대 위나라 사람 왕부인데 아버지 의가 사마소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그는 『詩經』 「蓼莪」장을 강독할 때마다 늘 아버지 생각이 나서 통곡하고 그 칠 줄 몰라서, 제자들이 『詩經』의 그 부분을 강론하는 것을 폐하고 넘어갔다는 내용에 대하여 시를 지은 것이다. 고산에게 忠孝는 양전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음의 시에서 그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睡覺思親 자다가 깨서 어버이를 생각하다

庭闈溫清誠宜念 부모님 문안을 진실로 살피야 하지만
宗社安危豈忍看 종사의 안위를 어찌 차마 보고만 있으리.
以孝爲忠忠便孝 효도로써 충성하면 충성 또한 효도되니
孰云忠孝兩全難 누가 충과 효를 양전하기 어렵다고 하는가.

둘째는 중국 杭州의 고사를 다룬 작품들을 들 수 있다. 바로 「錢塘春望」과 「冒雪訪孤山」이다. 이는 1606년 병오년과 1612년 임자년의 과사에서 지은 작품들이다. 1606년에는 이 작품으로 승보시에 장원 급제하여 향시에 입격하게 되었고, 1612년에는 이 작품으로 진사시에 급제하게 된다.²³⁾

「錢塘春望」은 18연 36구로 되어 있으며, 항주 錢塘江의 역사적 고사를 다루면서, 항주의 봄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 마지막 구절은 ‘鐘鳴靈隱夕陽低 十里垂柳晴烟均 / 영은산에 종이 울리고 석양이 지는데, 십리에 늘어진 버들은 맑은 안개 고루 퍼졌네.’라고 아름답게 서술되어 있다. 종소리가 퍼지면 맑은 안개도 퍼진다는 문학적 상상력이 돋보인다.

22) 그의 「正氣歌」는 충신들을 고무시킨 대표작으로, 우리나라에선 임란의 의병장 제봉 고경명의 『正氣錄』에도 그 충절사상이 이어지고 있다.

23) 年譜에 의하면 고산은 17세 진사시를 시작으로 47세 증광복시에 이르기까지 모두 8차례의 과거 시험을 보았던 기록이 있다. 적어도 30년간은 과시를 위한 東詩 창작에 몰두하였으리라 여겨진다.

「冒雪訪孤山」은 항주 西湖의 宋代 시인 林逋와 孤山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중국의 지역에 얽힌 이야기가 17세기 전반 과시의 제목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고산은 매우 해박하게 관련 사실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고산은 經史에 열중하여 학습하였다는 기록이 있듯이, 중국의 고전에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위의 작품들도 田汝成의 『西湖志』와 같은 책들을 두루 보았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셋째는 문인 선비의 청빈하고 자연적인 삶을 다룬 작품들로서, 「淸風明月不用一錢買」와 「家具小於車」이다. 앞의 작품은 21연 42구로 되었고, 이 백의 시구를 차용한 제목이다. 물론 나중에는 소동파의 「후적벽부」에도 나오는 시구이다. 청풍명월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벗하며 살아가는 즐거움을 그린 작품이다. 「家具小於車」는 무려 35연 70구로 된 작품으로, 당나라 시인 孟郊의 고사를 인용하여 지었다. 마지막 구는 ‘汚邪滿車鼓腹歌 / 밭에서 수레 가득 싣고 배 두드리며 노래 부르니, 百乘素餐眞可藐 / 백승의 녹봉 받는 일일랑 멀리할 만하다네.²⁴⁾’라고 하여 청빈하고 자연적인 삶을 그리고 있다.

넷째는 작자의 서정적이며 풍류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마음에 관한 작품들이다. 어느 시구에서나 서정적 정서가 들어 있다지만, 작품 전체에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壬子년 고산의 26세작인 「愁」와, 戊子년 고산의 62세작인 「客心洗流水」이다. 「愁」에서도 근심이란 어디에나 있는 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니 차라리 술잔을 들자는 마지막 구절은 20대의 작으로 보기에는 사실 너무나 원숙한 모습이다.²⁵⁾ 20대와 60

24) 백승소찬(百乘素餐): 백승은 높은 벼슬을 가리키며, 소찬은 녹봉 받는 일이다, 여기서는 공로 또는 재능이 없이 높은 지위에 앉아 녹을 타먹는 일을 가리킨다.

25) 필사시집에는 乙巳년으로 되어 있다. 을사년은 1605년(19세), 1665년(79세)인데, 만약 후자라면 유배지에 있을 때 지은 작으로 되어 있다. 그해 3월에 광양으로 이배되었는데, 이 기록이 맞는다면 작품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광양으로 이배되기 전에 지은 작인 듯하다. 그러나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고산은 19세 때에도 과거 시험의 준비를 위하여 많은 동시를 지었던 것 같다.

대의 비슷한 소재의 작품이 남아있어서 무척 흥미롭다.

「客心洗流水」란 나그네 마음을 흐르는 물에 씻는다는 뜻이지만, ‘流水曲’이라는 거문고의 곡명이 있는 것처럼 주로 거문고의 연주에 따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 ‘曲終調絕碧山暮 / 곡조는 끝나고 푸른 산은 저물어 가는데, 席上猶有泠泠音 / 자리 위에는 아직도 맑은 소리 남아 있구나.’와 같은 구절은 전편이 한 곡의 거문고를 연주하며 느낀 바를 서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孤山遺稿』 소재 동시 8수는 모두 네 가지 부류의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3.2. 필사 시집 所載 東詩 작품

현재 문집 『孤山遺稿』에 동시가 8수가 실려 있지만, 간행본 문집에 실리지 않은 동시 작품이 고산의 필사본 시집에서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고산에 의하여 창작되었다고 여겨지는 동시 작품은 상당수에 이른다. 현재 녹우당 소장 필사본 시집 가운데는, 몇 군데로 나뉘어 약 200여 수가 가까운 동시 자료가 실려 있다. 물론 위에서 살핀 『孤山遺稿』에 실린 8수의 동시도 모두 이들 필사 시집 안에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지 않은 동시 작품의 제목을 앞부분의 작품들을 일부 들고, 간단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貌瘦天下肥」(辛亥年, 24연), 「宣室夜召」(壬子年, 20연), 「垂涕見漢儀」(壬子年, 18연), 「喜晴」(壬子年, 18연), 「三呼過河」(壬子年, 20연), 「閑對宮花識舊香」(壬子年, 20연), 「紅縷燕」(壬子年, 21연) 등 많은 동시 자료가 실려 있다.

이들 작품들은 상당부분 歷史와 故事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이 많다. 「貌瘦天下肥」를 지을 때는 고산이 25세 되던 해이다. 그는 한양에 있다가 11월에 해남으로 성묘를 가는데, 이 작품은 성묘가기 이전에 지은 작품인 듯하다. 서두 부분은 다음과 같다.

山齋無事白日靜 산재에 일이 없으니 한 낮이 고요하여
 左右圖書關竹扉 좌우로 책을 펼쳐 놓고 울타리를 닫았네
 閑看唐史到開元 한가하게 唐史를 읽다가 開元 연간에 이르러
 掩卷長歎憑書幃 책을 덮고 장탄식하며 책 휘장에 기대다네
 (이하 생략)

이 구절은 『唐史』를 읽으면서 감회가 생기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내용은 시대에 대한 아픔을 표현한 것이다. 개원 연間は 玄宗의 치세였는데, 이를 통하여 역사 인식을 드러내 주고 있다. 군왕이 귀에 거슬리는 말도 잘 받아들이면, 한 사람은 비록 수척하지만 천하의 백성들은 살핀다는 내용이 제목에 드러난 표현이다. 이처럼 역사에 대한 평을 하는 동시가 고산의 시에는 자주 보인다. 「人間讀史各君臣」도 역사 고사를 다루면서 忠에 대하여 그리고 있다. 이는 동시가 역사와 문학의 만남이라는 면을 넘어서, 많은 상소를 하였던 고산 자신의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은 26세 되던 임자년 작인 「喜晴」의 서두 부분 내용으로, 날씨가 맑아짐을 기뻐하면서 지은 작품이다. 이는 18연으로 비교적 동시의 정형화를 따르고 있는 작품이다.

春王正月歲壬子 봄의 왕인 정월, 때는 임자년이라
 雨雪連旬陰氣擰 눈비가 열흘 동안 이어져 음기가 가득하네
 日月隱沒物皆晦 일월이 숨어 사물이 모두 어두워지니
 雲霧痞塞天彭脰 운무에 답답하게 막혀 하늘이 부풀었네
 (이하 생략)

임자년은 그가 진사시에 합격한 해로, 그 때의 東詩 「冒雪訪孤山」이 매우 유명해졌다. 그 무렵 많은 동시를 창작 하면서 작품을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작품도 그 때의 작품이다. 답답한 모습으로 하늘이 부풀었다는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다. 동시는 역사적인 사실이나 전고 등에 가려서, 그 시적 이미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동시

에는 재미있는 상상에 기반한 상징적, 비유적 표현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시구 하나 하나를 동시가 지니는 표현의 아름다움이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현재까지 필사 시집에 보이는 東詩의 내용도 『孤山遺稿』에 실린 동시의 몇 가지 내용처럼 다양하다고 여겨진다. 동시 작품이 단순한 ‘經史’를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작자의 서정적인 면을 많이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고산 동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필사 시집 가운데 고산 동시의 존재에 대하여 간단하게 언급을 하였다. 이러한 자료군은 17세기 東詩의 면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군이 될 것이다. 이들 동시 작품에는 長短句의 사용, 聯數의 다양한 형식 등이 잘 드러나고 있다. 향후 좀 더 전체적인 자료 정리와 번역이 이루어지면, 고산 東詩의 세계가 잘 드러날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으로 고산 윤선도의 한시 가운데 『孤山遺稿』에 실리지 않은 한시에 대하여 그 모습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새로운 자료적인 면에서, 필사본 『私稿詩』와 필사본 東詩 資料集 등에 실린 고산 한시가 새로운 작품으로 추가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고산 작품의 새로운 추가는 고산 문학 연구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제시되는 내용이다.

『私稿詩』에는 약 50여 수의 새로운 한시가, 필사본 동시자료집에도 약 200여 수 정도의 동시 작품들이 남아있다. 따라서 기존에 약 360여 수가량의 고산 한시가, 이들 작품의 추가로 전체 600여 수 내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새로 발견된 한시 자료의 내용을 위에서 간단하게 언급하였는데, 향후 이에 대한 전체적인 번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필자는 『孤山遺稿』에 실리지 않았던 고산의 모든 작품을 망라하여, 이른바 『孤山全書』의 편찬에 힘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는 東詩 자료뿐만 아니라, 『私稿詩』 소재 새로운 한시 등이 함께 더 실릴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들 한시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散文 작품들이 더 남아 있다.²⁶⁾ 앞으로 과제의 하나로 이들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와 번역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26) 散文 작품도 상당 부분 더 보충될 수 있을 것이다. 「海南民人等疏草」, 「刪後無詩論」, 「孔明勸殺劉封論」, 「禹鼎銘」, 「擬宋江東師范成大謝開宴西小軒仍賜御書石湖二大字表」, 「對蒙養策」, 「對君國策」 등 십수 편의 산문 작품들, 그리고 「歌徹愛君賦」, 「泣新樂賦」 등 10여 편의 賦 작품들도 새롭게 발견되어서 정리 중이다.

참고문헌

- 尹善道, 『孤山遺稿』, 한국문집총간 91, 한국고전번역원, 1992.
- 尹善道, 「筆寫本 詩集類」, 綠雨堂 所藏
綠雨堂 소장 필사본 『私稿詩』
『孤山先生年譜』, 『孤山遺稿』 所載, 윤고산문화사업회, 1996.
- 윤주현 · 박호배 역, 『孤山 尹善道 文學選集』, 정미문화사, 2003.
- 윤선도 저, 이형대 외 역, 『國譯 孤山遺稿』, 소명출판, 2004.
- 윤선도 저, 이상현 역, 『고산유고 1, 2』, 한국고전번역원, 2011, 2012.
- 김대현, 「『孤山遺稿』 권6 所載 東詩 「冒雪訪孤山」 고찰」, 『한문학보』 제 18집, 우리한문학회, 2008. 370-375면.
- _____, 「17세기 東詩 文學과 孤山 尹善道の 「錢塘春望」」, 『한문학보』 제 19집, 우리한문학회. 2008. 305-307면.
- 문영오, 『孤山文學詳論』, 태학사, 2001.
- 박종우, 「고산 윤선도 한시의 일고찰」, 『어문논집』 45호, 민족어문학회, 2002.
- 박준규, 「고산의 漢詩연구」, 『孤山研究』 3호, 1989.
- _____, 『유배지에서 부르는 노래』, 중앙M&B, 1997.
- 윤승현, 『고산 윤선도연구: 고산촌 발견과 고산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홍익재, 1999.
- 송일기 · 노기춘 편, 『해남 녹우당의 고문헌』, 태학사, 2003.
- 이병혁, 「韓國科文研究」, 『동양학』 16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6.
- 이종범, 「孤山 尹善道の 出處觀과 政論」, 『대구사학』 Vol.74, 대구사학회, 2004.
- 임형택, 『전환기의 동아시아 문학』, 창작과 비평사, 1985.

- 장유승, 「조선시대 과체시연구」, 『한국한시연구』 11, 한국한시학회, 2003.
- 정윤섭, 『‘녹우당’ 해남윤씨 가의 가학과 예술의 성격』, 목포대 학위논문, 2003.
- 조동일, 「고산연구의 회고와 전망」, 『孤山研究』 창간호, 고산연구회, 1987.
- 허경진, 「동시품회보와 허균의 과체시」, 『冽上古典研究』 제 14집, 열상고전연구회, 2001.

투고일 : 2013년 7월 15일, 심사 : 2013년 7월 24일~8월 9일, 게재확정 : 8월 9일

<Abstract>

The Bibliographic Study of Gosan YunSundo's Chinese Poem

Kim, Dae-hyun

Gosan YunSundo(尹善道, 1587-1671) is a well-known seventeenth century writer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The style and characteristics of his literature have been revealed by previous books and articl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we understand every aspects of his literature because his some works have not been released. In this article, I will focus on his unreleased works from a bibliographic view.

Nokudang(綠雨堂), the head family of Haenam(海南) Yun(尹) clan, has several poetical manuscripts whose title is Sagosi(私稿詩). Sagosi consists of 84 volumes with 393 poems in 285 chapters. Sagosi includes approximately 50 more Chinese poems in which Gosan-Yugodoes not have.

Therefore, these 50 Chinese poems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YunSundo's literature. There are not only about 20 verses(元韻), moreover, but also poems with self-annotation of his writings and the exact dates when they were written in Sagosi. We can get useful information from these poems to make a chronological list of Gosan's literature.

Gosan was a writer who mainly worked in seventeenth century, but he wrote many poems succeeding traditional Eastern poetic literature(東詩, Dong-Si). According to Gosan's materials, we could say that he was not

only a representative poet during theseventeenth century, but also one of the eminent poets of Eastern poems in Korean history.

Interestingly, Gosan-Yugo has 8 Eastern poems. We can classify these 8 poems into four different categories. First, they are the works about filial piety in history. Second, they are about an old story in Hangzhou(杭州) province in China. Third, they are describing classical scholars who were poor but honest and poetical. Forth, they are reflecting the poet's lyrical mind. Besides, there are still Gosan's 100 poems including Mosu-Cheonhabi(貌瘦天下肥) in Sagosi. Counting these Chinese poems(Han-Si), the total of Gosan's Chinese poems(Han-Si) would increase from 360 to around 500.

Key words : Gosan YunSundo(尹善道, 1587-1671), Gosan-Yugo(孤山遺稿), Sagosi(私稿詩), Dong-Si(東詩), Guachaesi(科體詩)

